

2005년도 IMD · 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을 대상으로 -

2005. 12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

< 목 차 >

I. 분석 개요	1
II. IMD와 WEF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비교·분석	3
III. IMD·WEF 국가경쟁력 국가별 비교분석	7
1. 미국	
2. 서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 일본	
4. 중국	
5. 대만, 홍콩, 싱가포르	
IV. IMD·WEF 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17
1.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	
(1) 경제 관련 분야	
(2) 정부 관련 분야	
(3) 기술 관련 분야	
(4) 기업 관련 분야	
2. IMD·WEF 평가의 종합적 이해 및 전략적 대응방안	

<별 책>

- 2005년도 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I. 분석 개요

□ 추진 배경

- 2005년도 IMD, WEF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쟁력의 강·약점에 대한 양 기관의 공통점,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이상으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을 대상으로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하고
- 이를 다시 IMD(「2005년도 IMD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책자 '05.8)와 비교·분석하였음
- * 분석 대상국가 (10개국)
 - 주요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
 - 아시아 경쟁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5개국

□ IMD·WEF의 세계경쟁력 개념

-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능력인 국력보다는 좁은 의미로서
-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 WEF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하고 있음

□ IMD · WEF 경쟁력의 비교분석 틀(framework)

- IMD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 기업경영효율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 이를 20개 부문, 314개 항목(경성자료 201개, 설문자료 113개)을 적용하여 평가함
- WEF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성장경쟁력의 3개 분야(거시경제환경, 공공기관, 기술력)와, 기업경영경쟁력 2개 분야(기업경영전략 정교화,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를 합쳐 5개 분야로 구분하고
 - 이를 7개 부문, 93개 항목(경성자료 14개, 설문자료 79개)을 적용, 평가함
- ※ WEF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경제성장경쟁력 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기업경영경쟁력지수(BCI: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장경쟁력지수(GCI)로 간주됨

【 IMD와 WEF의 구성비교 】

IMD 국가경쟁력 평가(종합 순위)						WEF 국가경쟁력 평가						
						1. WEF 경제성장경쟁력(GCI) 순위						
① 경제운영성과분야			② 정부행정효율분야			① 거시경제환경분야			② 공공기관분야			
5대 부문 (77개 항목)	국내경제	28개 항목	5대 부문 (73개 항목)	공공재정	11개항목	3대 부문 (10개 항목)	거시경제안정	8개 항목	2대 부문 (7개 항목)	계약이행 및 법규준수	4개 항목	
	국제무역	20개 항목		재정정책	15개항목		정부낭비요소	1개 항목		공공기관 부패	3개 항목	
	국제투자자	17개 항목		제도적 여건	16개항목			국가신용등급				1개 항목
	고용	8개 항목		기업관련법	20개항목							
	가격	4개 항목		사회적 제반여건	11개항목							
③ 발전인프라분야			④ 기업경영효율분야			③ 기술력분야			2. 기업경영경쟁력 (BCI) 순위			
5대 부문 (95개 항목)	기본인프라	22개 항목	5대 부문 (69개 항목)	생산성·효율성	9개항목	2대 부문 (16개 항목)	혁신	6개 항목	④기업경영전략 정교화 분야	15개 항목		
	기술인프라	20개 항목		노동시장	21개항목		정보통신기술	10개 항목		⑤국내기업 경영 환경 질 분야	45개 항목	
	과학인프라	22개 항목		금융	21개항목							
	보건 및 환경	17개 항목		경영활동	11개항목							
	교육	14개 항목		행태·가치	7개항목							
총 314개 항목						GCI 33개 항목			BCI 60개 항목			
						총 93개 항목						

II. IMD와 WEF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비교·분석

◆ IMD, WEF 양 기관의 경쟁력 평가에 대한 비교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개념, 분석틀(분야, 부문, 항목), 조사대상국 수 (IMD 60국, WEF 117국), 조사방법(설문·통계 비중) 등이 서로 달라 대등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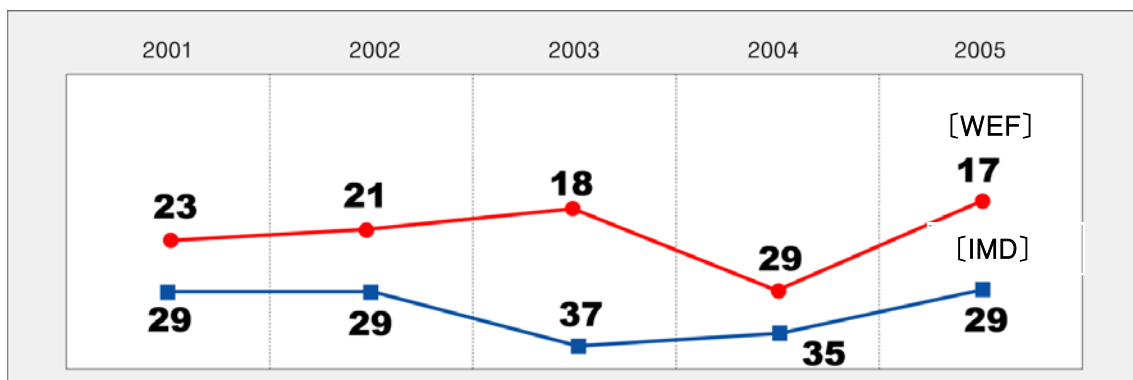
⇒ 양 기관이 보는 우리나라 경쟁력의 강·약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아 가급적 유사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함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 2005년도 WEF·IMD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7위, 29위로 평가되어

- 전년도에 비해 각 12단계(WEF)와 6단계(IMD) 상승하였음

<연도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 또한 WEF의 국가경쟁력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IMD도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주요 선진국 및 경쟁 대상국에 대한 비교

- IMD, WEF의 평가결과, 인구 5천만명·소득 2만불 이상 규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한 경쟁력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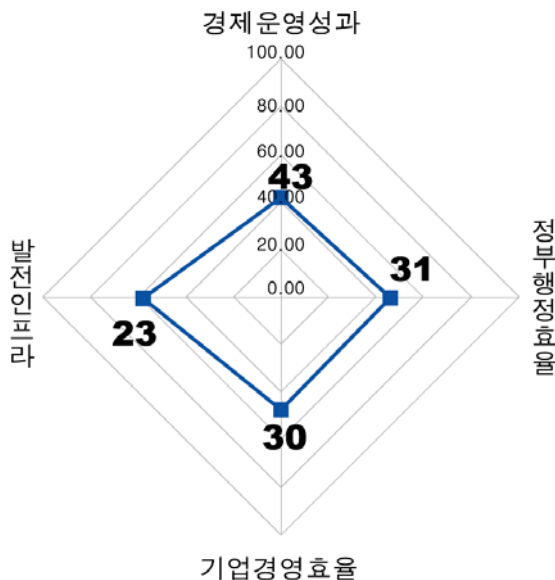
< '05년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비교 >

구분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IMD	1	2	3	11	21	22	23	29	30	53	31
WEF	2	28	6	5	12	13	15	17	30	47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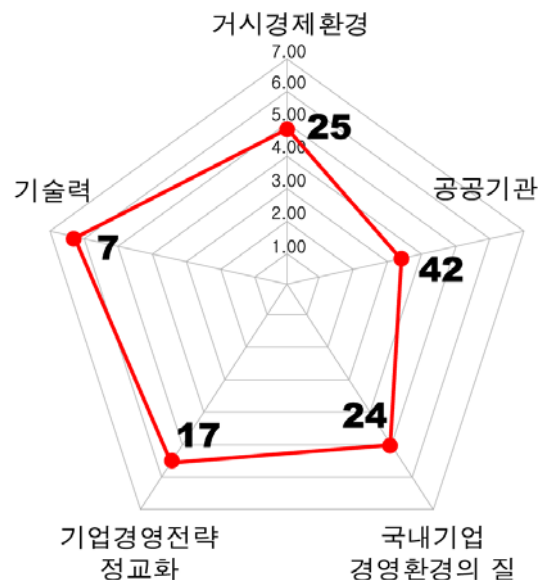
- 다만, 홍콩에 대해서만 IMD(2위), WEF(28위)로 양 평가기관의 평가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 분석

[IMD 4대 분야]



[WEF 5대 분야]



-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IMD의 발전인프라(23위), WEF의 기술력(7위)은 양 기관이 종합순위와 대비, 한국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관련 경쟁력 분야에서는 양기관이 서로 상이한 평가(IMD: 정부행정효율 31위, WEF: 공공기관 42위)를 하고 있음
 - 이는 IMD가 정부행정효율 분야를 공공재정, 재정정책 등 5대 부문으로 평가한 데 비해
 - WEF는 법규준수, 공공기관부패 등 2대 부문으로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부패(52위)가 결정적 약점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경제와 기업 관련 분야에서는 IMD, WEF 양 기관 모두 비슷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관련 분야는 IMD(경제운영성과 43위), WEF(거시경제환경 25위) 모두 종합순위(29위, 17위)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 기업관련 분야는 IMD(기업경영효율 30위), WEF(기업경영전략 정교화 17위, 기업경영환경 질 24위) 공히 종합순위(29위, 17위)와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음

□ 부문 및 항목별 분석

IMD						WEF					
						1. 경제성장경쟁력(GCI)					
① 경제운영 성과분야		43	② 정부행정 효율분야		31	① 거시경제 환경분야		25	② 공공 기관분야		42
5대 부문	○국내경제	32	5대 부문	●공공재정	14	3대 부문	●거시경제 안정	8	2대 부문	○계약이행 법규준수	41
	○국제무역	34		●재정정책	15		○정부낭비 요소	32		○공공기관 부패	52
	○국제투자	51		○제도적여건	30						
	●고용	8		○기업관련법	34		○국가신용 등급	28			
	○가격	56		○사회적여건	58						
③ 발전 인프라분야		23	④ 기업경영 효율분야		30	③ 기술력 분야		7	2. 기업경영 경쟁력(BCI)		
5대 부문	●기본인프라	23	5대 부문	○생산·효율성	42	2대 부문	●혁신	8	④기업경영전략 정교화 분야		17
	●기술인프라	2		●노동시장	26		●정보통신 기술	11	⑤국내기업 경영 환경 질 분야		24
	●과학인프라	15		○금융	38						
	○보건·환경	33		●경영활동	26						
	○교육	40		●행태·가치	25						

● : 강점 부문, ○ : 약점 부문(우리나라 종합순위인 IMD 29위, WEF 17위를 기준으로 판단)

○ **IMD · WEF 양 기관의 공통 상위 부문 및 항목**

- 경제 및 정부 관련 부문 : IMD는 고용 및 실업(8위), 공공 재정(14위), 재정 정책(15위), WEF는 거시경제안정(8위)등 임

※ 경제 및 정부 관련 항목 : IMD는 실업률(4위), 공공재정(14위), 국내부채(15위), WEF는 이자율(6위), 저축율(10위), 정부부채(11위), 정부재정(14위) 등 임

- 과학기술 관련 부문 : IMD는 과학인프라(15위), 기술인프라(2위), WEF는 혁신(8위), 정보통신기술(11위)등 임

※ 과학기술 관련 항목 : IMD는 광대역통신망 가입자수(1위), 특허생산성(2위), 고등교육 비율(4위), 특허획득수(4위), WEF는 고등교육 재학율(2위), 인터넷 사용자수(3위), IT정책 우선순위(7위), 산학협력(10위) 등 임

○ **IMD · WEF의 공통 취약 부문은 없으며**

- 공통 취약 항목은 ①노사관계, ②부패, ③외국에 대한 배타성, ④신용대출 등임

< IMD, WEF 공통 취약 항목 >

구 분	IMD(60국 대상)	WEF(117국 대상)
①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적대성(60위)	비협력적 노사관계(81위)
②부패	뇌물 공여와 부패비리(33위)	조세 관련 부패(61위), 수출·입 관련 부패(51위), 공공요금 관련 부패(49위)
③외국에 대한 배타성	외국문화에 대한 폐쇄성(53위), 외국인 노동자 취업 관련법(53위)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의 배타성(61위),
④신용대출	은행업무와 금융 서비스 지원도 (44위), 신용대출의 용이성(42위)	회사운영자금 신용대출(4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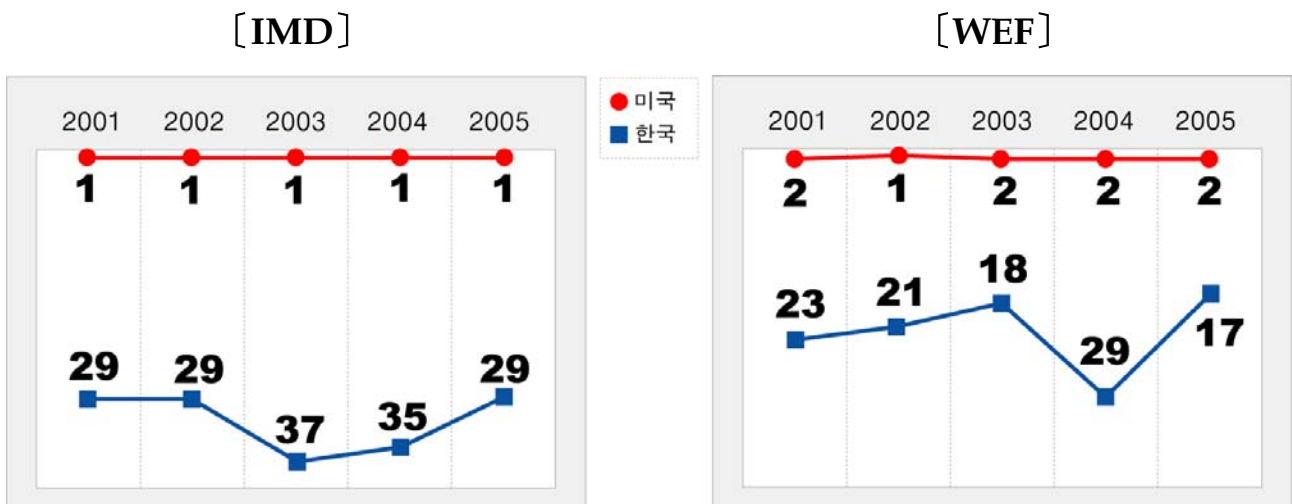
Ⅲ. IMD · WEF 국가경쟁력 국가별 비교분석

- ◆ IMD, WEF의 경쟁력 평가에 대한 종합순위 추세는, '01~'05년까지 5년을 비교하였고
- ◆ 양 기관의 분야별 비교분석은 IMD의 4대 분야(경제, 기술, 정부, 기업)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음

	IMD	WEF
① 경제 관련 분야	· 경제운영성과	· 거시경제환경
② 기술 관련 분야	· 발전인프라	· 기술력
③ 정부 관련 분야	· 정부행정효율	· 공공기관
④ 기업 관련 분야	· 기업경영효율	· 기업경영전략 정교화 ·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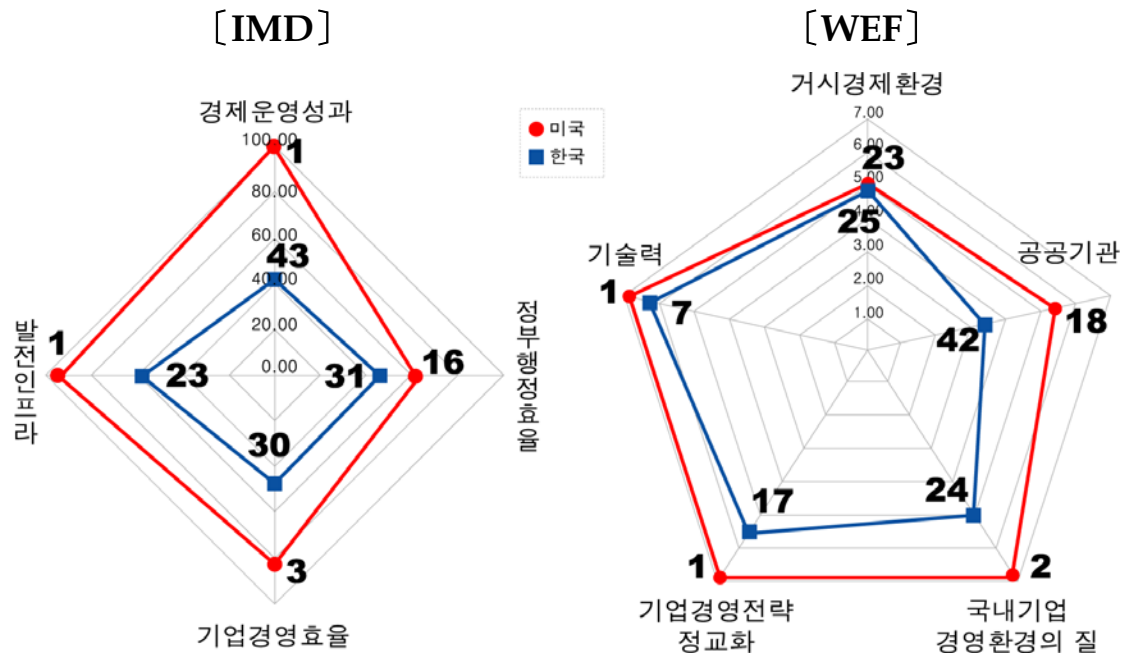
1. 미 국

□ 경쟁력 추세 비교



- '01~'05년까지 미국의 국가경쟁력은 IMD, WEF 양 기관 모두 세계최고인 1, 2위로 평가함

□ 분야별 비교



- 미국은 경제, 기술, 기업, 정부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음
 - 특히, 미래의 성장잠재력의 척도가 되는 기술분야(IMD 발전 인프라, WEF 기술력)와
 - 경제 및 기업관련 분야(IMD 경제운영성과, WEF 기업경영전략 정교화, 국내경영환경의 질)등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미국의 강한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우리나라도 IMD 정부행정효율 분야 중 공공재정(14위) 및 재정정책(15위) 부문은 미국(38위, 22위)보다 앞서 있으며
 - WEF 거시경제환경 분야는 미국(23위)과 한국(25위)이 비슷한 수준 이면서 이 중 재정적자규모(14위)와 정부부채 항목(11위)은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이 미국(92위, 76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서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서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IMD 53위, WEF 47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서유럽국가들의 경쟁력 순위는 2000년대에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탈리아의 세계경쟁력 순위 하락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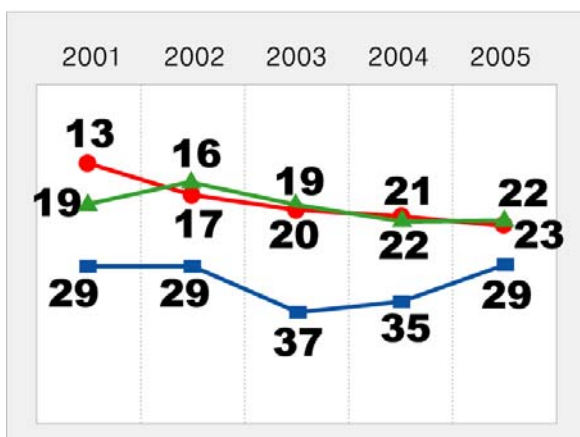
* '01년도 우리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는 5년간 IMD 20단계('01년 33위 → '05년 53위), WEF 21단계('01년 26위 → '05년 47위)로 급격히 하락하여 우리나라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유럽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서유럽국가들의 낮은 경제성장율(프랑스 2.1%, 독일 1.6%, 이탈리아 1.2%)과 높은 실업율(프랑스 9.6%, 독일 9.5%, 이탈리아 8.0%)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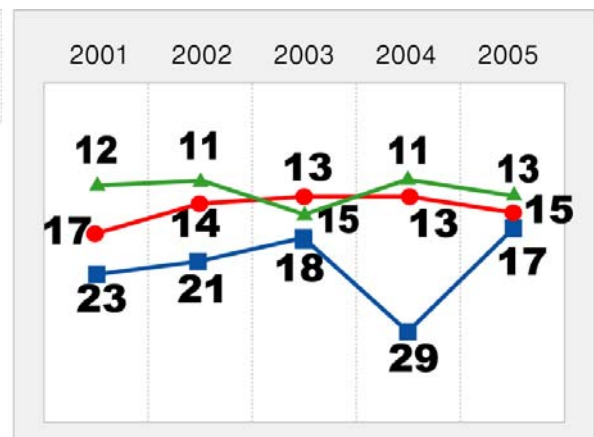
《영국, 독일》

□ 경쟁력 추세 비교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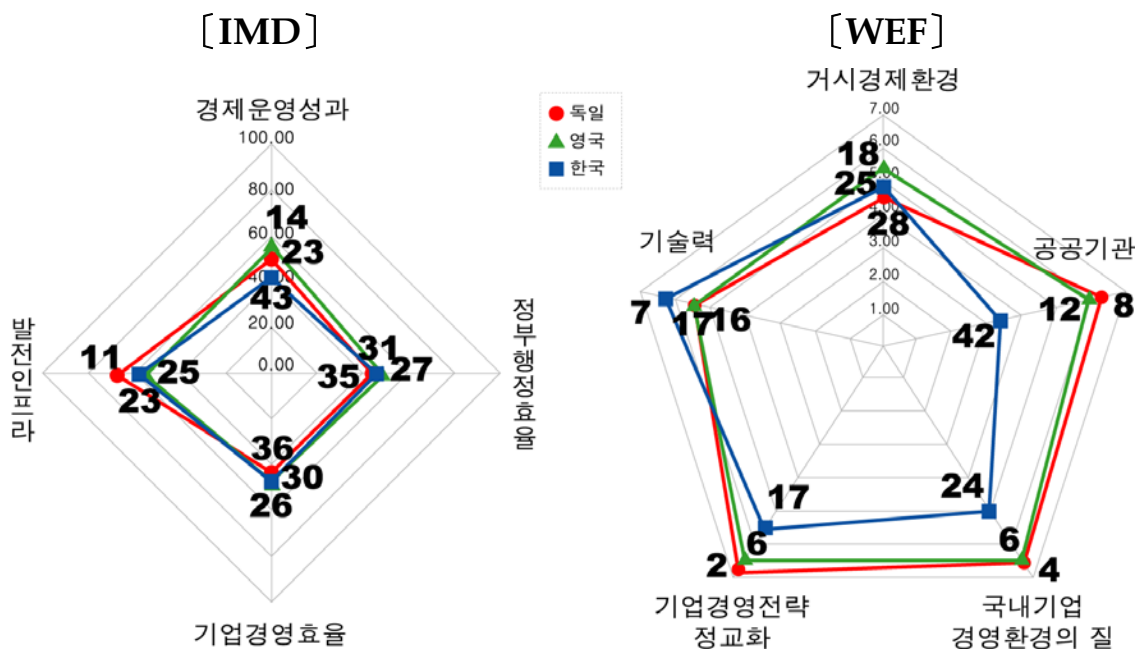


[WEF]



- **IMD**는 영국과 독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10위→ 20위권)하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WEF**는 양국이 꾸준히 10위권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경쟁력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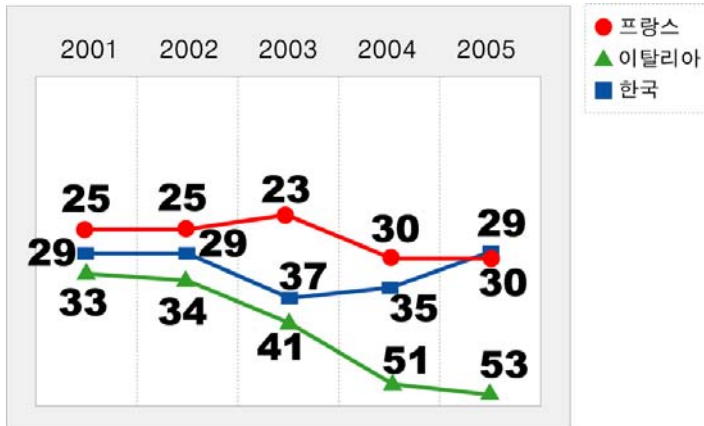


- 영국은 경제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으나
 - 기술관련 분야(IMD 발전인프라, WEF 기술력)에서는 한국(23위, 7위)이 영국(25위, 17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독일에 대한 IMD, WEF의 분야별 평가는 완전히 상반됨
 - 경제·기술 관련분야 : IMD는 독일(23위, 11위)이 우리나라 (43위, 23위)보다 강한 반면, WEF는 독일을 약세로 평가 (독일 : 28위, 16위, 한국 : 17위, 7위)하고 있으며
 - 기업·정부 관련분야 : IMD는 독일(36위, 35위)이 한국(30위, 31위)보다 약한 반면, WEF는 독일을 강세로 평가(독일:3위, 8위, 한국:24위, 42위)하고 있음

《프랑스, 이탈리아》

□ 경쟁력 추세 비교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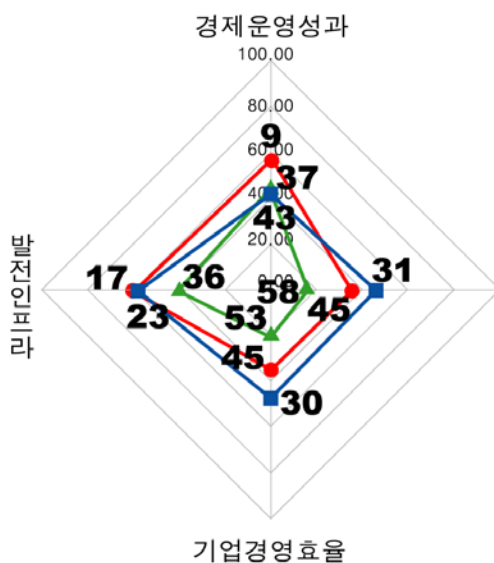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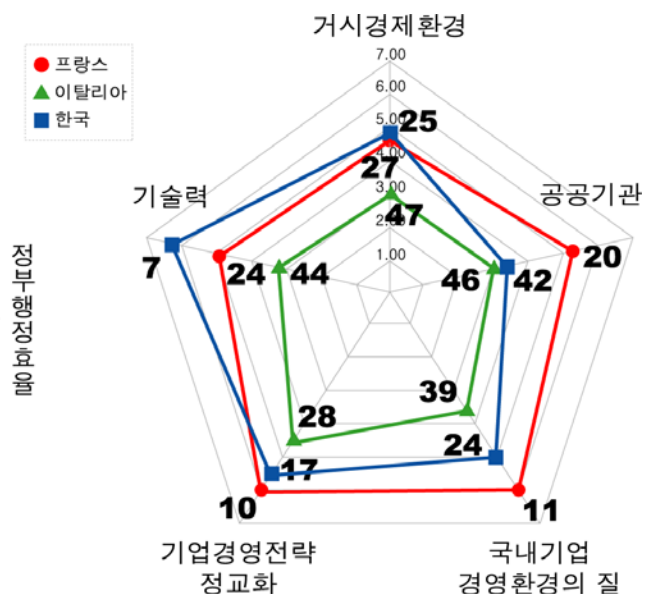
- '01~'05년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가경쟁력은 IMD, WEF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IMD는 WEF와 달리 '05년도부터 우리나라(29위)가 처음으로 프랑스(30위)를 앞지른 것으로 평가하였음
- ※ WEF는 그 동안 '04년을 제외하고는 '02년부터 줄곧 한국이 프랑스를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분야별 비교

[IMD]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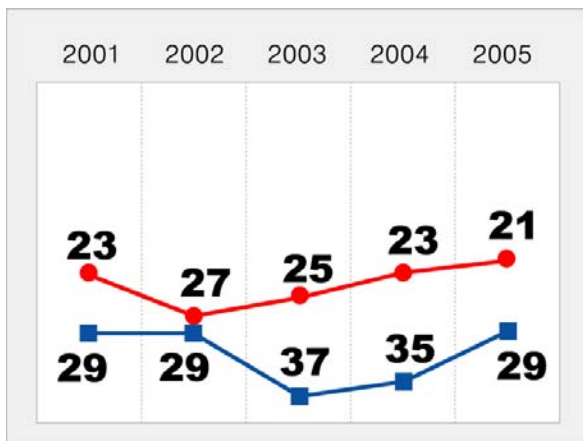


- 프랑스는 독일과 같이 IMD, WEF의 분야별 평가가 완전히 상반됨
 - 경제·기술 관련분야 : IMD는 프랑스(9위, 17위)가 우리나라 (43위, 23위)보다 강한 반면, WEF는 프랑스를 약세(프랑스: 27위 24위 한국: 25위 7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 기업·정부 관련분야 : IMD는 프랑스(45위, 45위),가 한국(30위, 31위) 보다 약한 반면, WEF는 프랑스를 강세로 평가(프랑스:11위, 20위, 한국:24위, 42위)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경제, 기술, 기업, 정부 관련 모든 분야(IMD 경제 운영성과 분야 제외)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열세임

3. 일본

□ 경쟁력 추세 비교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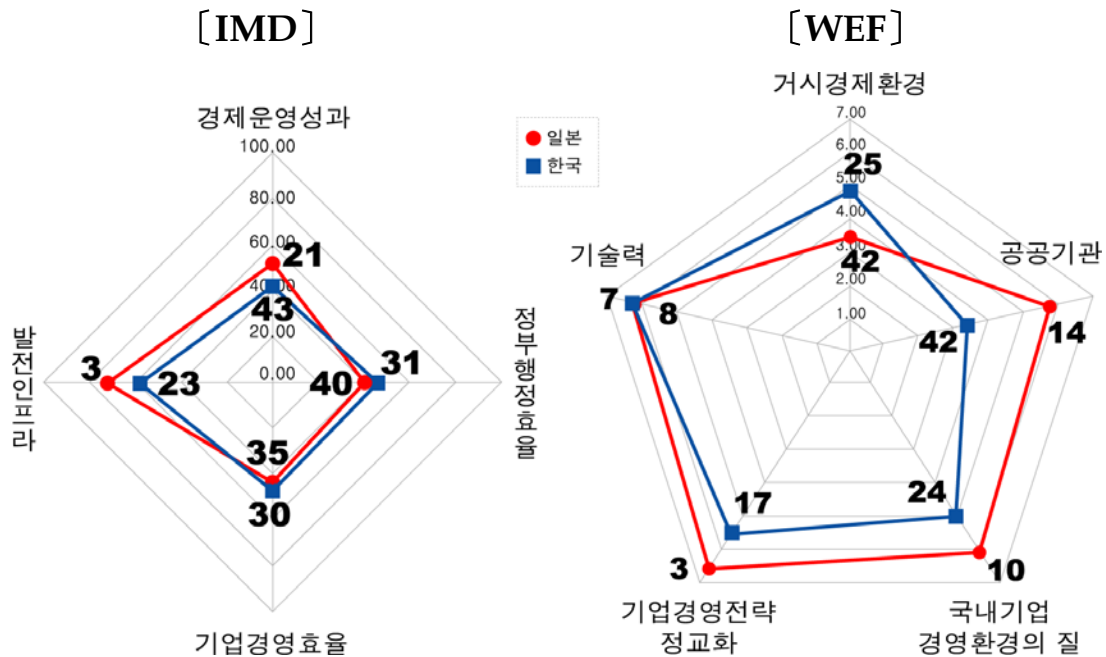
[WEF]



- IMD는 일본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02년 제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WEF는 '05년에는 '04년에 비해 오히려 3단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IMD·WEF는 한국, 일본의 경쟁력 순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으로 평가함

* IMD : '03년 12단계→'05년 8단계, WEF : '02년 8단계→'05년 5단계

□ 분야별 비교



○ 일본에 대한 IMD, WEF의 분야별 평가는 완전히 상반됨

- 경제·기술 관련분야 : IMD는 일본(21위, 3위)이 한국(43위, 23위)보다 강한 반면, WEF는 일본을 약세로 평가(일본:42위, 8위, 한국:25위, 7위)하고 있으며
- 기업·정부 관련분야 : IMD는 일본(35위, 40위)이 한국(30위, 31위)보다 약한 반면, WEF는 일본을 강세로 평가(일본:8위, 14위, 한국:24위, 42위)하고 있음

○ 특히, IMD가 일본의 기술관련 분야(발전인프라 분야 3위)의 경쟁력을 우리나라(23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과학 인프라(2위), 기술 인프라(9위) 부문 등이 강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 WEF가 한국의 기술관련 분야(기술력 분야 7위)를 일본(8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정보통신기술(11위) 부문이 월등히(6단계)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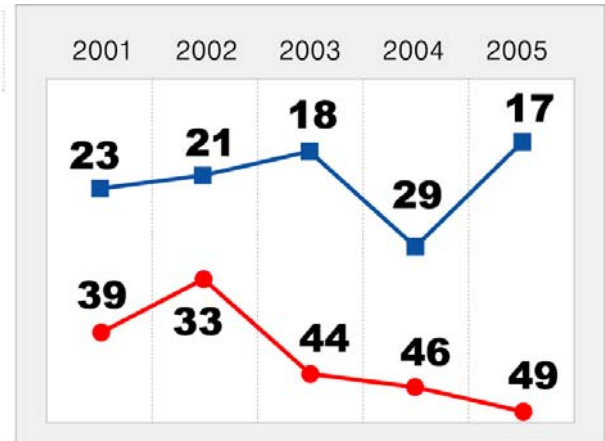
4. 중국

□ 경쟁력 추세 비교

[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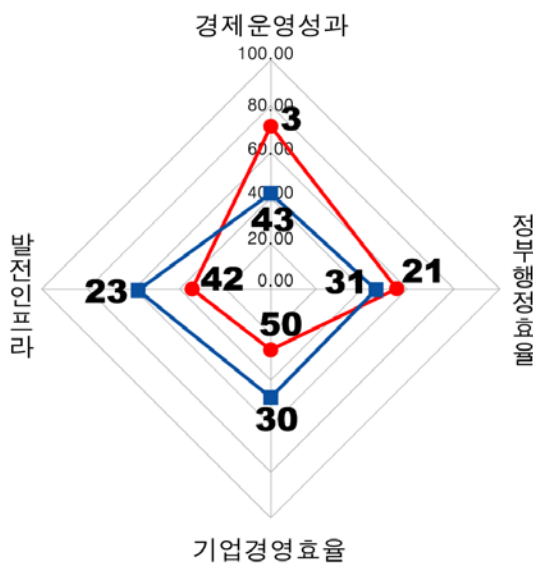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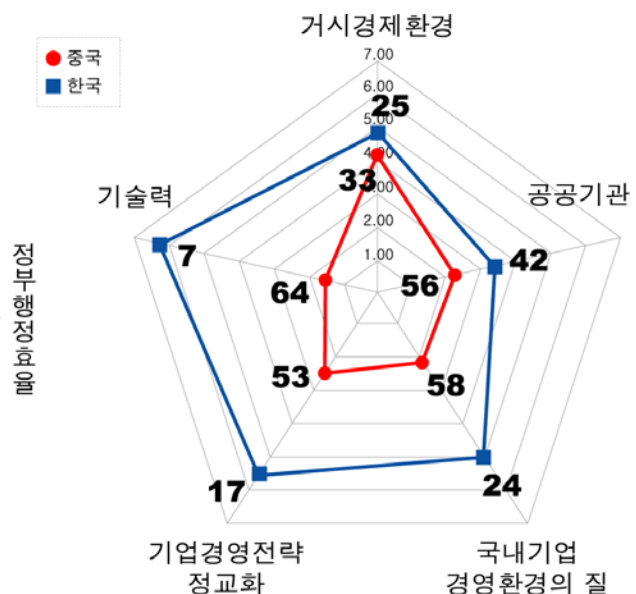
- 중국은 '04년(IMD)과 '02년(WEF)외에는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IMD는 중국에 대해 WEF('01~'05년 한국 계속 우위)와 달리 '05년에 처음으로 한국(29위)이 중국(31위)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분야별 비교

[IMD]



[WEF]



○ 중국은 경제, 기술, 기업, 정부 등 전 분야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성장잠재력을 의미하는 기술관련 분야 및 부문이 취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관련 분야 : IMD 발전인프라 42위, WEF 기술력 6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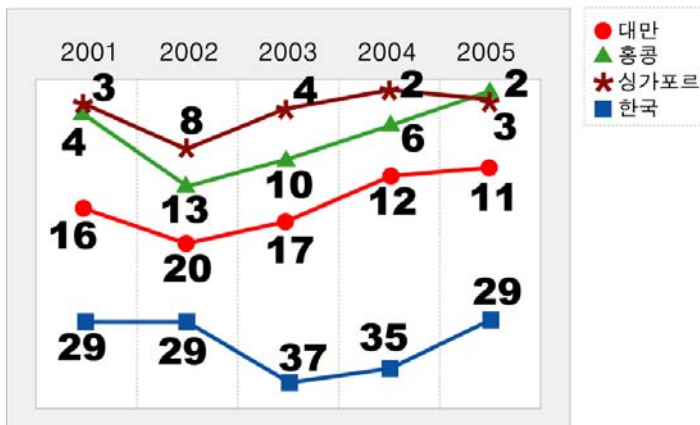
기술관련 부문 : IMD 기술인프라 38위, WEF 혁신 75위, IT기술 60위

○ 다만, IMD는 예외적으로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분야는 중국(3위, 21위)이 한국(43위, 31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5. 대만, 홍콩, 싱가포르

□ 경쟁력 추세 비교

[IMD]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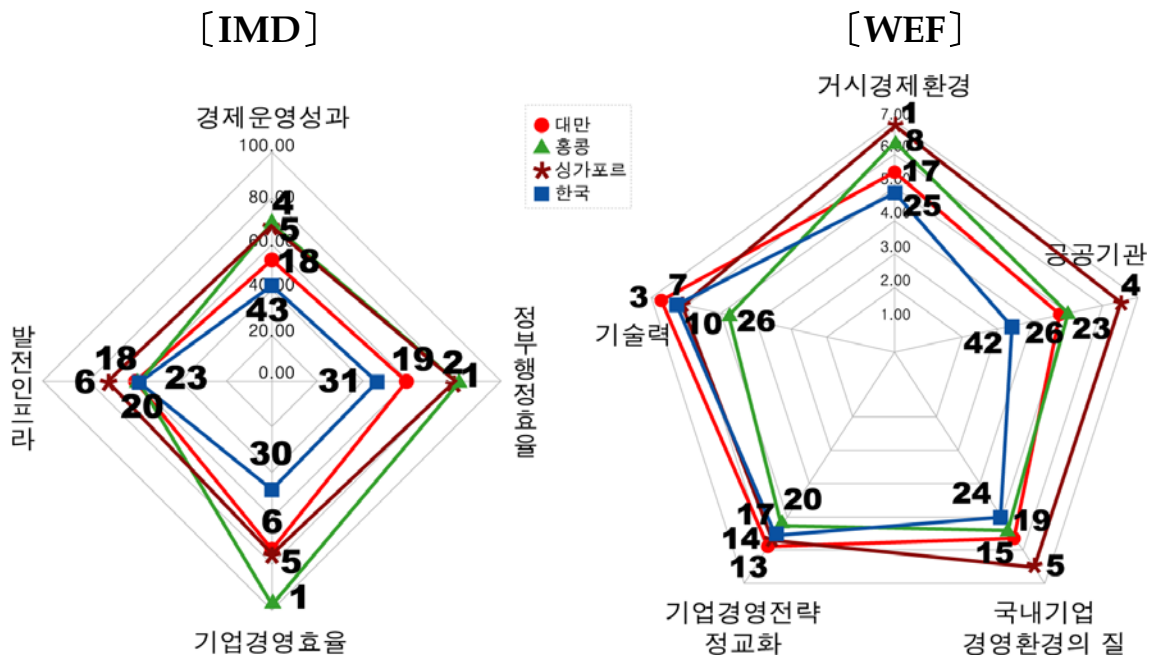


○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쟁력 수준은 IMD·WEF 모두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5년도 홍콩에 대한 IMD·WEF의 경쟁력 순위는 완전히 상반됨

- IMD는 홍콩(2위)이 한국(29위)보다 우위로 평가한 반면, WEF는 오히려 한국(17위)이 홍콩(28위)을 앞선 것으로 평가하였음

□ 분야별 비교



- 홍콩에 대한 분야별 평가는 경쟁력 순위와 같이 IMD·WEF 양 기관의 평가는 상반됨
 - IMD는 모든 분야에서 홍콩을 한국보다 우위로 평가한 반면, WEF는 기술 및 기업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7위, 17위)가 홍콩(26위, 20위)보다 우위인 것으로 평가 하였음
- 싱가포르는 경제, 기술, 기업, 정부 등 전 분야(WEF 기술력 분야 제외)에서 IMD·WEF가 공히 한국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대만도 경제, 기술, 기업, 정부 등 전 분야에서 IMD, WEF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기업경영효율(IMD 6위), 기술력(WEF 3위) 분야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24단계, 4단계) 나타나고 있음

IV. IMD · WEF 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1. IMD · WEF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

1

경제 관련 분야

- 경제 관련 분야는 IMD의 경제운영성과(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가격 등 5대 부문)와 WEF의 거시경제환경(거시경제안정, 정부낭비요소, 국가신용등급 등 3대 부문)분야를 평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IMD의 경제운영성과 분야에서 43위로 매우 낮은 수준, WEF는 25위로 중위권 수준이나, 전년도(49위, 35위)에 비해 6단계, 10단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음
 - 이는 IMD의 고용(8위), WEF의 거시경제안정(8위) 부문의 경쟁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다만, IMD의 국제투자(51위), 가격(56위), WEF의 정부낭비요소(32위), 국가신용등급(28위) 부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글로벌경쟁의 체제 하에서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 안정적인 경제운용 및 체질개선 등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2

정부 관련 분야

- 정부 관련 분야는 IMD의 정부행정효율(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제반여건 등 5대부문)과 WEF의 공공기관(법규준수, 공공기관 부패 등 2대 부문) 분야를 평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IMD의 정부행정효율분야에서 31위로 중위권 수준, WEF는 42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IMD의 공공재정(14위), 재정정책(15위) 부문이 강세인 반면 대부분의 부문(IMD 사회적 제약여건 58위, WEF 법규준수 41위, 공공기관 부패 52위)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WEF의 공공기관 부패 부문이 약세인 것은 조세관련 부패(61위), 수출입 관련 부패(51위), 공공요금관련 부패(49위) 등의 항목이 약점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 IMD 평가에서도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항목이 33위로 낮게 평가됨

⇒ 반부패 관행·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등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3 기술 관련 분야

- 기술 관련 분야는 IMD의 발전인프라(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등 5대 부문)와 WEF의 기술력(혁신, IT기술 등 2대 부문) 분야를 평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술 관련 분야에서 IMD, WEF(23위, 7위) 양 기관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임
 - 이는 IMD의 기술인프라(IMD 2위), 과학인프라(15위) 부문과 WEF의 IT기술(11위), 혁신(8위) 부문의 경쟁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다만, IMD의 기본인프라(23위), 교육(40위), 보건 및 환경(33위)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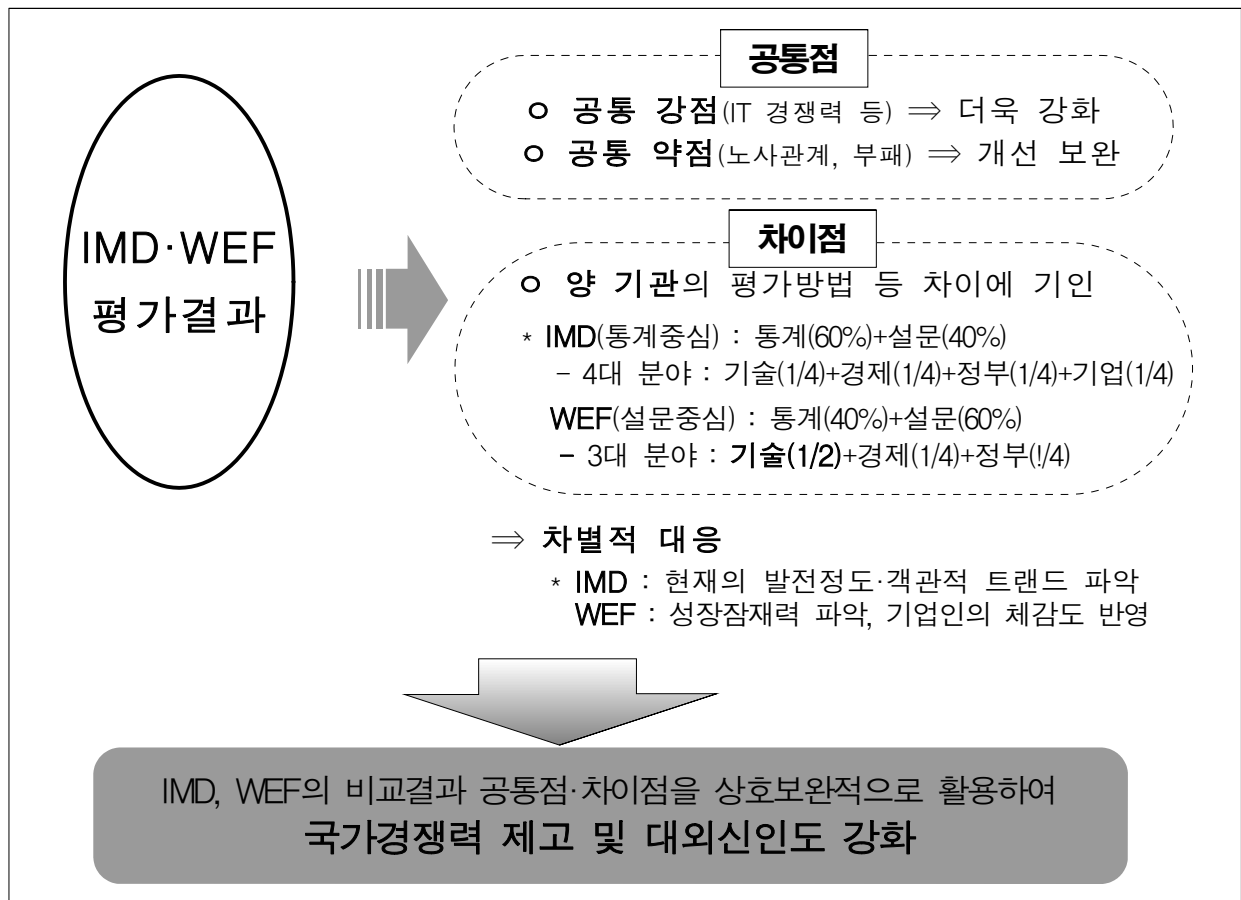
⇒ 우리의 강점요소인 IT 기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교육, 보건·환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4

기업 관련 분야

- 기업 관련 분야는 IMD의 기업경영효율(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활동, 행태·가치 등 5대 부문)과 WEF의 기업경영전략 정교화, 국내 기업 경영환경 질 등 2대 분야를 평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IMD의 기업경영효율(30위), WEF 기업경영전략 정교화(17위), 국내기업 경영환경 질(24위) 분야에서 IMD·WEF 종합순위(29위, 17위)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대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모두 이 분야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 이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이 느끼는 기업환경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크게 뒤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 노사관계의 적대성(IMD 60위, WEF 81위), 외국 문화에 대한 폐쇄성(IMD 53위),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의 배타성(WEF 61위) 등
- ⇒ 각종 기업관련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계속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IMD · WEF 평가의 종합적 이해 및 전략적 대응방안



□ IMD는 경제, 기술, 기업, 정부 등 4대 분야를 고르게 종합순위에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통계 및 설문조사의 비율이 6:4로 반영되고 있어 순위변화에 대한 변동 폭이 작아 경쟁력 추세가 안정적임

⇒ 현 상태의 우리나라 발전 정도와 경제, 기술 등 4대 분야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비교적 객관성 있는 통계자료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WEF는 기술, 경제, 정부 등 3대 분야(기업분야 제외) 중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기술 분야에 50%(경제25%, 정부25%)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력이 평가의 주축을 이루는 한편,

○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통계 및 설문조사의 비율이 4:6으로 설문결과가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05년도 IMD(29위) 보다 WEF(17위) 평가결과가 높은 이유는 경제(25위), 정부(42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술(7위)분야의 강세가 결정적으로 순위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반면,

* 홍콩의 '05년도 IMD(2위) 보다 WEF(28위)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는 경제(8위), 정부(23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술(26위)분야의 약점이 결정적으로 순위하락에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 장기 성장잠재력 및 조사 당시 기업인의 경제·사회에 대한 체감도가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04년 WEF 평가결과(29위) 우리나라가 '03년도(18위)에 비해 11단계 급락한 바 있으며, 이는 당시 조사 시기('04.3~4월)가 대통령 탄핵(3.12)시점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들의 불안심리가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IMD, WEF 등의 평가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의 척도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국내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양 기관의 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신인도 및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